

한국의 아랍어 번역현황과 과제*

김 종 도
(명지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 아랍어가 소개된 것은 1965년 한국외국어 대학교에 아랍어과가 개설되면서이다. 이후에 1976년에 명지대학교에 아랍어과(1)가 개설되었고, 1978년에는 계명대학교에 아랍어과가 개설되었지만 교수 미확보 및 학과운영 미숙으로 폐과가 되었다. 1979년에는 한국외대 야간학부에 아랍어과가 개설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1980년에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1983년에 부산외대, 1985년 조선대학교에 아랍어과가 개설되었으나 한국외대 야간학부의 아랍어과가 1988년에 폐과되어 현재 전국 4개 대학에 5개과가 아랍어 전과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건국대학교 히브리어과 보다 폭넓은 중동학 연구를 위하여 히브리 중동학과로 개편하여 내년부터 아랍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그간 졸업생 수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5천 여 명을 헤아리지만, 아랍어를 직업으로 삼고 전

* 한국번역학회 2004년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명지대학교는 2000년부터 아랍지역학과로 개편함.

문직종에 종사하는 숫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아랍어가 점점 중요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²⁾. 최근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 김선일 사건 등으로 아랍어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랍어 번역 및 통역의 인력양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는 작년 2월 지이툰 부대 군무원 통역요원을 41명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인적자원 부족 및 수준미달로 인해 최종적으로 12명만 채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아랍어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인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지사이며 아랍어 번역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아랍어 번역인력수급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아랍어 번역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삼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랍어 번역 현황

문화공보부에서는 그간 대외 홍보용 책자인 'Facts about Korea'를 아랍어로 번역하여 꾸준히 대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으며 가끔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시에 이를 홍보책자로 번역하여 아랍 제공관에 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잡지가 1987년부터 계간으로 번역되어 나왔으나 53호로 막을 내렸고 곧 이어 '한국'이라는 제호로 2년간 발간되다가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 잡지의 번역은 아랍수사학을 전공한 이명원이 번역을 주도하였으며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우리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랍어만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콕아랍어'라는 상호를 가지고 번역사업을 시작한 콕순례는 다양한 분야를 아랍어로 번역하면서 특히 많은 노하우를 쌓아, 삼성전자,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홍보 또는 상품설명서들을 백 여개

2) 미군은 전략적으로 아랍어와 중국어 능력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스파르타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05년 9월 22일 16면). 미 국가안보위원회는 작년 4월 아랍어 전공자등 7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혀 아랍어 전문가 채용에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조선일보 2004년 4월 12일 A19면).

이상 번역하였다. 15년 이상의 경험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일가견을 이루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통일부 위탁으로 예멘통일 문서록,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책자 등을 번역하였다.

최근에는 ‘우리와 중동’³⁾에서 번역분야에 뛰어들어 역시 카탈로그나 정부 간행물을 수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http://www.arab2korea.com/> 아랍어 판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국내거주하고 있는 아랍인들이 설립한 번역회사인 Jafarnet.com 등이 기업의 카탈로그 제작 및 공문서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아랍어 번역의 대들보의 역할은 한국방송공사의 국제방송의 아랍어반이다. 1975년 9월부터 개설된 아랍어 반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기사를 하루에 1시간씩 방송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이 웹상에 실려 있으며 아랍어 번역의 최고 산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루에 번역되는 분량은 A4로 40-60장 정도이다.

유감스럽게도 학부의 아랍어 관련학과에서는 아랍어 번역이라는 교과목 개설에 인색한 편이다. 명지대가 학부에 아랍어 통.번역입문(3학점), 대학원에 아랍어 통번역(3학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한국외대가 통역대학원에 번역학 전공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아랍어 번역 현 주소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번역 실적을 크게 학위논문, 문학, 종교, 교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2.1 학위논문

번역학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은 아직 없으나 석사학위 논문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아랍어 번역과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이 다양한 것은 한국외대 통역대학원들이 졸업시에 번역물을 논문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졸업논문이 선택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논문을 쓰지 않게 되어 번역논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번역은 아랍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인데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3) 2001년 9월에 설립한 중동전문 컨설팅 회사임.

연 도	번역 언어 ⁴⁾	연구자	연 구 논 문	내용 분류
1989.12	A	이상숙	앗 파이브 쌀리호의 北으로 향하는 移住의 季節 翻譯研究	문학
1990.12	A	김영주	후세인 하이칼의 '무함마드의 生涯' 翻譯研究 : 출생에서 메디나로의 이주까지	전기
1991.12	A	김재희	타우히끄 알하킴의 戯曲 '동굴속의 사람들' 翻譯研究	문학
1991.12	A	이상철	야호야 학끼의 '성자의 등불' 翻譯研究	문학
1991.12	A	이천	야호야 학끼의 '단편소설 카드게임 외 2편' 翻譯研究	문학
1991.12	A	임미란	알리 아흐마드 바카씨르의 희곡 '샤호라자드의 비밀' 번역연구	문학
1992.12	A	구미란	알-후스리의 '阿拉文化 統合에 대하여' 翻譯 研究	정치
1992.12	A	김동환	會議專門用語에 관한 研究	
1992.12	A	박인숙	파하 후세인의 '알아얀'에 대한 阿.韓 翻譯研究	문학
1992.12	A	서정민	칼리파 우마르 븐 알.카담의 生涯와 征服事業 研究	전기
1992.12	A	정선희	이슬람 女性의 地位 翻譯研究 : 아랍사상 모음집중에서	사회
1993.12	A	박경기	싸이드 마리의 政治白書. 전3권 중 제1부(국문판)	정치
1993.12	A	배윤례	나집 마호푸즈의 '출세주의자' 번역연구	문학
1993.12	A	배정옥	숄트 알라 이브라힘의 小説 '그 낚새' 翻譯 研究	문학
1993.12	A	최홍근	이집트 오라비革命에 관한 研究	정치
1993.12	A	홍성탁	타우히끄 알하킴의 戯曲作品 中 '바퀴벌레의 운명' 翻譯 研究	문학
1994.12	A	이계연	아랍어 貿易書翰의 번역연구 : 사례별 중요 무역서한을 중심으로	경제
1994.12	A	이정수	經濟,貿易 관련 阿拉語用語解説. 下	경제
1994.12	A	정중서	經濟,貿易 관련 阿拉語用語解説. 上	경제
1996.12	A	안현주	컴퓨터.情報通信 관련 阿拉語用語 解説	공학
1996.12	A	이태선	韓.阿 醫學用語集 : 각 분야별 주제를 중심으로	의학
1997.12	A	이동진	韓.阿 各種 演說文 翻譯 : 각 주제별로	사회
1998.12	A	이지영	經濟,貿易通商에 관한 研究	경제
1999.12	A	박선주	아랍어 서간문의 유형별 분류	사회
1999.12	A	이영미	타우히끄 알하킴의 희곡 <싸미라와 함다> 翻譯研究	문학
1999.12	A	지형섭	法律關聯用語에 관한 研究	법
2000.12	A	김선하	이슬람 關聯用語에 관한 研究	종교
2001.2	A	국화	韓.阿俗談比較研究	사회
2001.12	A	박지숙	나지브 마호푸즈 "지도자 서거일" 작품번역	문학
2001.12	A	배승렬	이집트의 IT産業의 現況과 관련 專門 用語 研究	공학
2002.2	A	이영희	아랍어 해양 관련 어휘에 관한 연구 : 해양법, 항해 및 해양 동식물 용어를 중심으로	해양
2002.2	A	정선미	싸미라 앳잠 Samirah Azzam(1927-1967) 연구 : 단편 "팔레스타인 사람", "또 한 해", "희생의 빵"을 중심으로	문학
2004.2	A	유성재	컴퓨터 인터넷에 관한 用語研究	공학
2004.2	A	이국희	電子電氣專門用語研究 : 韓阿對譯	공학
2004.2	A	주정훈	社會科學用語集 : 韓國語 阿拉語 對譯 및 解説	사회
2005.2	A	김래은	기독교 용어	종교

4) 본 논문에서 A는 아랍어, K는 한국어를 지칭함.

한국외대의 통역대학원에 아랍어 통·번역과정⁵⁾이 1980년 봄부터 개설되었지만 1988년까지 번역논문이 없었던 것은 번역물이 졸업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아랍어 번역학 분야의 박사학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아랍 지역에서는 학부나 대학원에 통·번역 분야가 개설되어 있어 번역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덕분인지는 몰라도 198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랍인에게 돌아갔으며 최근에는 아도니스가 다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음은 우리보다는 아랍권 이 수준 높은 번역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2.2 문학부분

2.2.1 소설부분

한국에서 아랍문학 번역의 효시는 송경숙이 『아한 대역 아랍 단편선』을 1984년에 선을 보임으로써 시작되었다. 다양한 아랍국적의 작가들이 쓴 12편의 단편들이 실려있으며 아랍어-한국어가 동시에 실려 있다⁵⁾. 이 외에도 송경숙은 팔레스타인 문학에 관심을 보이면서 1987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에집트의 나집 마흐푸즈의 「도적과 개들」(1987)을 번역하였으며 『아랍산문연구』(1985)도 편역하였다. 송경숙은 문학번역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아랍문학 소개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대모역할을 하였다. 송경숙은 특히 팔레스타인 문학에 애착을 가지고 ‘갓싼 카나파니 연구’로 1992년 한국외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가 번역한 아랍문학작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한 대역 아랍 단편선』, 서울, 한국 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84.

* 수록단편

「와드 하미드의 돛나무」 (앗파이브 앳쌀리흐(수단))

「어린 숙녀」 (무함마드 압둘 할림 압둘라(이집트))

「그 어린 것, 난민 수용소로 가다」 (갓싼 카나파니(팔레스타인))

「종이 왕관」 (마흐무드 타이무르(이집트))

「이방인」 (압둘 후마이드 브누 하두까(알제리아))

「두 개의 열쇠」 (일화트 알이딜비(시리아))

5) 본 논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지칭한다.

- 「걸인들의 파업」 (이호산 압둘 꾸두스(이집트))
「마르탈 바니아」 (지브란 칼릴 지브란(레바논))
「12호 병상의 죽음」 (갓싼 카나화니(팔레스타인))
「자아발라위」 (나집 마흐푸즈(이집트))
「범죄」 (자카리아 타미르(시리아))
「땅을 사랑하기에」 (무함마드 낫화아(팔레스타인))
2. 『도적과 개들』, 나집 마흐푸즈 저, (주)지학사, 1986. 여기에 수록된 작품은 「도적과 개들」과 「신 다섯 개의 거울」 등 2편의 장편소설이 실려 있다.
 3. 「신의 세계: 나집 마흐푸즈」, 『문학사상』, 1988년, 11월, 193호.
 4. 「걸인」, 나집 마흐푸즈, 『문학사상』, 1988년 12월.
 5. 「그때 그는 어린 아이였다」, 알 까바스, 한국외국어 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창간호, 1989.
 6. 「팔레스타인에서 온 세 편지」, 갓산 카나파니, 『문학사상』, 1989년 4월.
 7. 「슬픈 오렌지의 땅」, 갓산 카나파니, 『문학정신』, 54호, 1991년 3월.
 8. 「거리의 케익」, 『문학정신』, 54호, 1991년 3월.
 9. 「비밀결사」, 나집 마흐푸즈, “뺨”, 쏜으 알라 이브라힘, 『현대소설』, 1991년 여름호.
 10. 「그때 그는 어린 아이였다」, 한국중동학회 연례 발표회, 1992년.
 11. 「아랍시문학-팔레스타인 민족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스」, 『문학과 창작』, 1997년 9월, 25호, 문학 아카데미.
 12. 「신분증 외」, 마흐무드 다르위시, 『내일의 시』 제6호, 가을·겨울호, 삼문출판사, 1997년.
 13.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떠난다 외 시 3편」, 마흐무드 다르위시, 「시즈프스 외 시 2편」, 아도니스
「그녀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소리」, 소설, 『동서문학』 여름호, 2001.
 14. 「버스정류장」, 나집 마흐푸즈, 『미네르바』 제9호, 2002년 봄호.
 15. 「두 개의 열쇠」, 일화트 알 이딜비, 『미네르바』 제10호, 2002년 여름호.
 16. 「끓주림과 산」, 리야드 바이다스,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제8집 1호,

2004.

17. 「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 『창작과 비평』, 2004, 가을호.
18. 『갓산 카나파니 태양속의 남자들, 기타 단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4.
19. 「바위와 백리향의 땅」, 리아나 바드르, 『중동 여성문학의 이해』, 2004년.

송경숙은 이 외에도 소설 「접시를 도둑질해간 마술사」(나집 마흐푸즈), 갓산 카나파니의 「어린 것」, 「난민 수용소로가다」, 「슬픈 오렌지의 땅」 등의 작품을 번역하였고 나집 마흐푸즈의 노벨상 수상에 즈음하여 1988년 11월-1989년 1월 사이에 문학사상, 주부생활 등등의 기타 잡지에 여러 작품들을 번역 게재하였다.

송경숙을 이어 1985년에 한국외대 대학원생이었던 이영태, 박세훈, 문정민 등이 나집 마흐푸즈의 『미다끄 골목 사람들』을 번역하였는데 1988년 나집 마흐푸즈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자 재판의 재판을 거듭하는 주가를 올렸다. 1988년 나집 마흐푸즈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그의 몇몇 작품이 번역되었다. 아랍문학 전공자인 전완경은 1988년에 나집 마흐푸즈의 『우리 동네 이야기』와 타하 후세인의 『밤새들의 기도』(1991)를 출간하였고, “나집 마흐푸즈 문학연구”(1995)로 박사학위를 받은 문애희도 나집 마흐푸즈의 『우리동네 아이들』(1988)과 『포로의 옷』(1988)을 번역 출간하였다. 김종도는 198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발표에 앞서 나집 마흐푸즈의 단편 『천국의 아이들』을 번역하여 여원사에 보냈는데 그해 12월 호에 ‘여원’게재 되었으며 현재 아랍 어린이 동화책 시리즈와 속담 번역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조만간에 출간될 예정이다.

조희선은 1998년에 아랍인의 해학이 듬뿍 담긴 『아랍인의 주하이 이야기』를 아랍어-한국어 판을 출간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문학번역연구원의 지원으로 김종인의 「감자」,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나도향의 「물레방아」, 김동인의 「붉은산」, 김유정의 「소나기」와 「봄봄」,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 이상의 「날개」, 채만식의 「치숙」, 선우휘의 「불꽃」 등을 번역하여 레바논의 다루알 아담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한국 소설이 아랍어로 번역됨으로써 한국문화

소개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이동은도 1998년 같은 해에 아랍인의 우화의 최고 봉이라고 할 수 있는 『칼리라와 딘나』를 번역 출간하였다. 김정아는 2001년도에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알 자이즈의 『수전노』를 아랍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으나 아직 대산문화재단지원의 한국문학작품의 아랍어 번역은 전무하다. 이라크 전쟁 발발에 앞서 안현주 외 5인⁶⁾은 2003년 2월에 이라크 전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의 장편소설인 『자비바와 여왕』을 번역하였다. 이 소설은 국내에서 번역된 이라크 최초의 소설로 일간지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천일야화의 경우도 아직 아랍어판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판을 번역한 것으로 아랍어 전문가들이 원본을 두고 번역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문애회는 2004년에 알 사다위 나왈의 『천국에는 그 여자의 자리도 없다』(2004) 등을 중심으로 여러 작가들의 단편을 모은 단편모음집을 번역하였다. 유감스러운 일은 아라비안나이트가 아랍어를 통한 번역이 시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어 아랍문학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길은 요원한 것 같다. 아랍시가 전공인 김능우도 몇 편의 소설을 번역하였는데 그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왈 사오다위 「전장관님의 서거」, 『아랍어와 아랍문학』(제 8집, 2004)
2. 하난 세이크 「페르시아 양탄자」, 「사막의 장미」, 『아랍어와 아랍문학』(제9집, 2005)

2.2.2 시부문

아랍시 번역 부분에서는 송경숙의 뒤를 이어 김종도, 김능우, 장세원, 임병필 등이 두고 아랍시 소개를 하고 있다. 송경숙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문학잡지에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였다. 김종도는 유학시절(1982-1992) 틈틈히 한국시를 번역하거나 자작시를 번역하여 아랍어 일간지 등에 싣기도 하였으며 1991년 12월 18일 수단(Sudan) 정부가 정한 ‘한국의 날’에는 카르툼 대학에서 한국번역시 시화전과 낭송회를 갖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4년 한국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한국 현대시 81선 번역』을 수행하기도

6) 5인은 박재양, 최진영, 배혜경, 장세원, 이동은 등이다.

했다. 안타깝게도 업무이관이 한국문학번역원으로 옮겨지면서 아직 출판이 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 3월 이집트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김종도는 지금 『아랍속담집』과 『아랍 동화 100선』을 번역중이다. 김능우는 꾸준히 고대아랍시를 비롯한 현대시를 번역하여 여러 잡지에 실었다. 임병필이 그간 번역한 시는 다음과 같다.

1. 1999, 『현대아랍시』, 임병필, 한국어-아랍어, 『시세계』 제9권 통권 25호
2. 2000, 「현대 아랍시의 현장 점검」, 임병필, 한국어, 『다층』 여름호
3. 2000, 「노벨문학상을 향하여: 아랍시인 아도니스의 문학세계」, 임병필, 『미네르바』 창간호
4. 2003, 「반전평화시-이라크 대표시인 2인선」, 임병필, 『시경』 제3호
5. 2003, 「이라크시편」, 임병필, 『실천문학』 72호
6. 2003, 「현대 아랍시의 두 거장: 아도니스와 마흐무드 다르위쉬」, 임병필, 『시와 사람』 제30호

임병필은 지난 2004년 9월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아랍시의 자유를 향하여』(세종출판사)를 출간하였는데 아랍 자유시의 실험정신과 변화, 죽음과 부활, 자유시의 형태에 대하여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여러 아랍시의 번역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김능우는 다음과 같은 시를 번역하였는데 주로 주시(酒詩)와 전쟁시가 많다. 그가 번역한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부탐맘 「암무리아 전투 승전가」, 『아랍시의 세계』(김능우, 명지출판사, 2004)
2. 이븐 카이사라니 「누르딘 칭송시」, (상동)
3. 마흐무드 다르위쉬 「신분증」, 「여권」,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 「덧없는 말 사이에 지나가는 자들」, 「망명지에서 온 편지」, 『창작과 비평』(가을, 제30권 제3호, 통권 117호, 창작과 비평사, 2002)
4. 바드르 샤키르 사이얏 「강과 죽음」, 「비의 찬가」,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6집, 한국어아랍어아랍문학회, 2002)

5. 이므를 카이스 「무알라카」,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2집, 한국어아랍어 아랍문학회, 1998)

작년 6월에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주최하는 제1회 아시아 청년작가 워크숍에 참석한 이라크 문인협회장인 묵타르가 고 김선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고 김선일씨에게 보내는 편지」란 자작시를 썼는데 장세원이 이를 번역하였다. 여러 일간지가 이 시를 대서특필하여 시의적절하게 아랍시 소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장세원은 『문학동네』 2004 가을호에 역시 묵타르의 「절규」와 「질문」의

7) 2004년 6월 28, 29일자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에 실림.

故김선일씨에게 보내는 편지

김선일 형제여!
우리는 홀로 독재의 살육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뿜는 총구와 조화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나의 글이 당신을 살해한 자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지난밤은 독재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독재는 칼로서 우리를 살육했습니다.
우리의 땅은 공동묘지로 넘쳐나고
감옥과 피난처는 우리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할 정도로.
수감자들이여! 우리는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맛보기보다 죽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맛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와 고아들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처마는 성난 비로 흠뻑 젖었습니다.
독재는 이제 쥐구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독재의 그늘이 걷히고,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속박의 끈을 끊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길을 막다른 길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늑대의 꼬리, 바스당의 무리들이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다이내마이트를 사용한 테러분자입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어 우리의 순수한 영혼과 몸과 우리의 자동차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궁 속에서 태아를 살해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살해했고,
사원에서 세이크들을,
집에서 숙녀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이 당신 선일 씨를 죽였을 때,
당신의 피는 우리 이라크 국민의 피를 따라 흘렀으며
그래서 우리의 외침과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 흐느끼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자식인 양
우리의 아이들도 당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인 양
나 또한 당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피로써, 고통으로써 그런 죽음으로써

두 편의 시를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에는 「예언자」란 시로 유명한 레바논 시인인 칼릴 지브란의 시가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으나 모두 아랍어가 아닌 영어나 기타 언어로부터 번역된 것들이다. 앞으로 아랍작가 중 세계적인 작가는 아랍어로 직접 번역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브란과 관련된 이중화의 석사논문(한국외대, 1986)도 있다.

23 종교부분

종교부분에서는 최영길이가 단연 다작의 책을 번역하여 종교분야의 틀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1980년대에 김용선과 최영길이가 번역하였다. 최영길이는 특히 이슬람 관련 저서를 많이 번역하였는데 단연 수위를 달리며 있으며 작년부터 코란 사전 편찬팀을 이끌고 진행 중이다. 그의 주요 번역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슬람의 거래와 관습』 (1979, 이슬람 문화센터; 사우디)
2. 『하디스 40선』 (1982.12.24, 신생사)
3. 『꾸란해설』 (1989, 송산출판사)
4.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 (1997.4.24, 파하드 국왕 꾸란출판청; 사우디)
5. 『무함마드의 생애』 (98.7.27, 신지평)
6. 『이슬람 교리의 범규』 (2000,4,10, 알림 도서출판)
7. 『라마단』 (2000,11,12, 알림 도서출판)
8. 『무함마드 어록』 (2001,6,27, 리야드, 사우디 아라비아)
9. 『이슬람』 (단식과 성지순례, 2001.10.30, 도서출판 알림)
10.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관습』 (2002.11.20, 알림 도서출판)
11. 『꾸란과 이슬람』 (2004.10.9, 알림 도서출판)
12. 『이슬람 위인들』 (2004.11, 알림 도서출판)

최영길 외에도 홍순남이 1982년에 마우두디의 『이슬람에로 올바른 접근』을 번역하였으며, 정무삼은 알 칼라바디의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교리』를 1995

년에 번역 출간하여 이슬람의 신비주의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정규영도 1987년에 『사도 무함만의 가르침』을 번역하였다. 앞으로 이슬람을 보다 더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번역물이 다양하게 출간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아랍어 이외에 영어, 일본어, 불어에서 번역된 이슬람 관련 책들이 2001년 9.11 사태 이후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24 교재

대학교재는 주로 어학용 교재가 번역 출간되었으며 초보자를 위한 도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시사·경제분야의 교재도 몇 권 번역된 것이 있다. 아직 본격적인 대학교재는 없는 실정이다. 먼저 사전류는 이종택이 한국 최초로 『현대 표준아랍어 사전』(1987)을 편찬하였는데 아랍어과 학생들의 학업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후 이두선·최영길 공저로 『실용 아랍사전』(1999)이 나왔고, 이종택은 전자의 사전을 토대로 여러 연구원들과 『현대 아랍사전』(2001)을 편찬하였다. 송경숙과 김능우가 공저로 『한아사전』(한국외대 출판부 간)의 편찬 올해 출간하였다. 최근 BK사업 일환으로 한국외대에서 월드컵에 즈음하여 『축구 용어 사전』(2002)을 아·한·영 3개 국어로 발간하였다.

오명근은 아랍번역과 관련된 대학교재를 1990년에 『아랍어 연구: 번역과 작문』을 출간하여 아랍어 번역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그 후 이 책을 보완하여 2000년에 『아랍어 번역연구』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었으며 현재 『시대를 넘나드는 아랍어』를 번역하여 출간을 앞두고 있다. 김종도는 1994년에 『생활아랍어』를, 2000년에 『실용생활아랍어』를 번역 출간하였다.

최영길은 『아랍어문법해설』(1982.2.1, 명지대 아랍어문학과)을 출간하였고 한덕규는 원문이 아랍·영어로 된 『무역아랍어』(2002)을 저술했으며, 홍순남은 『시사아랍어』(1988)와 1988년에 『아랍서간문』과 『아랍어 산문』을 번역 출간하여 교재개발에 기여하였다. 손주영도 『고급현대 아랍어』(2000)을 번역 출간하여 아랍어-한국 번역교육에 일조를 하고 있다.

전완경은 문화부분에서 2003년에 밀라드 한나의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는 일곱 기둥』을 번역하였으며, 이인섭과 최진영은 공동으로 한국개발원의 『아랍 국가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2000), 『이슬람 문화권 국가 사회과 교

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분석: 튀니지, 레바논,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1999), 『한국의 역사』(1999)등을 아랍어로 번역하였다. 윤은경, 공지현, 안현주, 이계연 등도 방송 및 기업체 등의 아랍어 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통·번역과 관련된 논문은 홍순남이 1975년에 한국외대 통대논문집에 “아랍어 통·번역의 방법 고찰론”을 발표하여 학문적인 포문을 열었으나 그 이후로 이계연이 아랍어아랍문학회 제6집에 게재한 “아·한 번역에 나타난 화행연구”(2003)가 있는 정도라 앞으로 많은 번역관련 논문이 쏟아져 나와 번역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아랍어 번역의 과제

아랍어 번역인재의 양성은 현재 사설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권에 속해 있는 교육기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대학들이 체계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번역인재를 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아랍어 관련학과(아랍어과)들이 어학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학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운명인 관계로 번역과목은 설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서구나 아랍지역에서는 번역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상당히 발달하여 학문으로 자리매김은 물론 박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는 최근에 한국외대, 세종대학교 등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정도이다. 누구나 사전만가지면 번역은 할 수 있다는 못난 판단으로 아직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리랑 TV에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시간씩 연속극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주 2회 송출하였고, 11월부터는 주 6회 2시간씩 송출하고 있다. 지금은 연속극과 다큐멘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랍어로 제작하여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겨울연가」등을 방송하여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아랍어 번역수준이 아직 방송용에 따라가기는 벅찬 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번역)하며 외국

8) 조선일보 2005.12.12자 A1면 참조요.

인은 감수 정도나 말아야 아랍어 번역수준이 한층 높아지리라고 본다.

1) 번역학 과목 개설

대학에서는 아랍어 번역학 과목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적어도 2-4학기에 걸쳐 번역학습과 훈련이 쌓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들의 교과개정이 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2) 전문용어집 또는 예문집 발간

각 분야별로 아랍어 전문 용어화와 예문집 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랍어 번역 입문자들이 초기단계 혼동을 빚을 수 있는 것을 피하고 빠른 학습효과를 위하여 전문 용어집이나 예문집 발간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국외대가 “축구용어” 사전을 발간한 것은 좋은 한 예이다.

3) 번역물의 데이터화

그간 아랍어로 번역된 실적물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지 않아 아랍어번역 후속 번역세대에게 자료제공이나 번역기법을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후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체계적으로 번역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면 아랍어 번역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며 번역자들이 자기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보다는 후속세대에게 전수와 아랍어 번역 수준을 드높이기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4) 아랍어 번역학의 활성화

국내에는 아직 아랍어 번역학과 관련된 논문이 전무한 형편이다. 학문적 토대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현 아랍어 번역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번역의 활성화와 수준제고를 위하여 관련학자들의 연구는 물론, 아랍속담집이나 은어 표현 등에 관한 논문과 소개 책도 번역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문학에 대한 작품도 번역도 시도되어야 한다.

국내의 아랍어 번역은 아랍어의 한국어로의 번역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번역의 역조현상 개선을 위하여 우리 문학작품이나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어의 아랍어로의 번역에 대한 번역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 문학번역원⁹⁾에서는 적어도 유엔공용어인 아랍어도 지원대상 언어에 반드시 포함시켜 아랍어 번역의 저변확대와 수준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외국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한국문학연구원이나 대산문화재단¹⁰⁾ 등에서 아랍어 번역(A→B가 되는 B→A가 되든 간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5)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아랍어과 번역과목의 문제점

2개 언어 (A-B) 과정				
학기	구 분	교과목명	주당시수	학점
1	선 택	B언어 숙달 I	2	2
		한국어 숙달 I	2	2
	전공필수	일반번역 A→B	2	2
		일반번역 B→A	2	2
주제별 시사토론 I		2	1	
2	선 택	B언어 숙달II	2	1
		한국어 숙달II	2	1
	전공필수	산업경제번역A→B	2	2
		산업경제번역B→A	2	2
주제별 시사토론II		2	1	
3	선 택	논문지도 I		(1)추가(P/F)
	전공필수	과학기술번역A→B	2	2
		과학기술번역B→A	2	2
		번역세미나	2	2
4	선 택	논문지도II		(1)추가(P/F)
	전공필수	정치법률번역A→B	2	2
		정치법률번역B→A	2	2
		번역 Practicum	2	2

- 9) 아랍어 번역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나 지원이 따라야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모든 외국어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나 아직 아랍어 분야는 김종도가 1994년에 문예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것과 조희선이 2004년에 지원받은 것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 10) 대산문화재단은 1993년부터 한국문학 번역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4개 언어에만 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 최고의 통·번역 산실인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의 아랍어과 번역교과목을 보면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다. 입학하는 학생들이 아랍어과 학부출신이나 학부에서 전혀 번역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번역, 산업경제, 과학기술, 정치법률 등의 4과목을 배우고 실정이다. 무엇보다 아랍인과 무슬림들을 상대시에 종교적 표현은 약방에 감초처럼 필요하다. 아랍어의 경우는 종교분야가 아랍문화권 이해의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번역교과목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아직 이슬람 종교번역이 개설되지 않은 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 하나를 세우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바라보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서도 문학분야의 교과목도 개설되어야 하며, 이것은 역으로 아랍인의 의식구조나 문화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교과목이다. 앞으로 이 분야를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교수충원과 번역학 전공을 내실화하는 교과과정 개편과 더불어 번역학 전공 대학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교수진도 여러과목을 가르치기 보다는 교수 한명이 한과목씩 담당하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수 한명이 정치면 정치를 담당하여 5-7년 후에 이와 관련된 번역 전문서를 내도록 하여 수준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랍지역에서는 교수 한명이 한과목만 담당하고 있어 상당히 내실 있고 수준있는 번역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아랍권 및 이슬람권에 대한 인식전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랍권 및 이슬람권은 숫자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수가 3억여명에 이슬람권 인구가 15억여명 이상이 있다. 이슬람권 사람들은 아랍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읽기 때문에 아랍어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랍어로 많은 한국문학작품과 문화가 소개된다면 57개 이슬람권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7) 파행적인 제2외국어 교육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이 총체적인 부실임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제2외국어 교육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다. 제2외국어 교육의 부실은 국가부실로

이어지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문화를 아니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첩경으로 이어진다. 현재 아랍어를 중학교에서 생활 외국어로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으며 기껏 재량과목으로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도이다¹¹⁾. 미래의 번역자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중·고등학교에서 내실있는 제2외국어 교육을 하여 인적자원을 길어나가야 한다. 번역은 콩나물이 아니라 오랜 인고 끝에 움트는 인동초와 같은 것이므로 과행으로 흐르고 있는 제2외국어 교육을 살려야 번역학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된다.

8) 아랍어 번역 프로그램 개발

점점 아랍권과의 접촉이나 상거래가 빈번해지고 이슬람을 무시하고서 동시대를 살 수 없는 형편이므로 아랍어는 보다 절실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번역과 신속함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번역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맺는 말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아랍어 번역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대학의 아랍어과들조차도 전문적으로 아랍어 번역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 아직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문인력 야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학작품을 비롯한 종교분야에서 다수의 번역물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아직 우리나라의 아랍어 번역은 걸음마 단계이나 번역인력에 비하여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활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현실이다.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서 35편의 번역관련 석사논문이 나온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이들이 활약이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아랍어 번역계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과제라고 보며 1)아랍어 과의 번역학 과목 개설, 2)아

11) 작년에 불광중학교에서 32명이 배웠으나 올해 담당교사가 전근하는 바람에 가르치지 않고 있다.

랍어 전문 번역용어집 발간, 3)번역물의 데이터 베이스화, 4)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의 교과과정의 편협성, 5)우리의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편견, 6)과행적인 제2외국어 교육, 7)아랍어 번역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앞으로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아랍어 번역은 전문가 양성제도, 아랍어과의 교과개편과 그리고 번역 관련단체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현재보다 빠르고 수준 높은 번역과 후속세대 양성이 가능해 지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05년 9월 22일 16면.

조선일보. 2004년 4월 12일 A19면.

한국외국어 대학교. 2004. 『통역대학원 요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Izz al din Muhammad.1995. *Usus al tarjama*. Cairo, maktaba ibn sina li al nashr wa al tawji?

<http://jewish.konkuk.ac.kr/inform/curri.htm>.

<http://maincc.hufs.ac.kr/~arabic/>.

<http://new.mju.ac.kr/home/subject/college/list?orgid=10&orgpath=|01|07|10|>.

<http://www.arab2korea.com/>.

<http://www.pufs.ac.kr/home/arab>.

<http://www.chosun.ac.kr/~arab/>.



[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 Problems
of Arabic Translation in Korea**

Kim Jong Do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esent situation & problems of Arabic translation in Korea. Though the history of Arabic language in Korea passed 40 years, the standard of Arabic translation is on a low level. On the occasion of the globaliz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devote our energies in order to introduce our culture and tradition to foreigners. Of course,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raise the translation standard of the foreign languages.

As I have had interest in Arabic translation for a long time and translated some Korean poems into Arabic, I choose this subject to find solutions of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present situation & problems of Arabic translation in Korea. This paper consists of two main parts. Firstly, I classify the present situation of Arabic translation into four categories; dissertations, literature, religion and teaching materials. Unfortunately, until now there is no Ph.D in the field of Arabic translation at home and abroad among Koreans. Secondly, I propose the practicable proposals to overcome the problems facing the Arabic translation as follows; 1) absence of translation as a major in Arabic department, 2) absence of translation terminology between Arabic and Korean, 3) absence of data base of Arabic translation, 4) highbound of curriculum problems of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5) prejudice against Islam and Arabs, 6) absence of Arabic translation programme, 7) prejudiced education of Arabic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etc.

▶Key Words: Arabic translation, curriculum problem, Islam, second foreign language

김종도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아랍언어학

musakim@dreamwiz.com

전화 011-9708-5681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29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K C I